



부가가치 창출
후가공기기에 달렸다

오늘날 인쇄기를 비롯한 인쇄시스템은 프리프레스와 포스트프레스를 포함해서 자동화와 효율화가 눈부시게 발전되었다. 수주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으로 업체의 벽을 넘어 폭넓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보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성을 높이고 수익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후가공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다. 후가공기기는 인쇄기계의 웅장하고 화려한 성능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눈에 띄지 않지만 더한 층의 비용절감과 효율화, 고품질화를 시현하는 필요불가결의 시스템인 것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인쇄업은 100개사면 10개사마다 서로 다른 기계 가동 방법과 취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인쇄업체의 규모에서부터 시작하여 종업원이나 인쇄기의 구성, 주로 제조하는 인쇄물의 종류, 공장 내외의 환경이나 지역적인 요소 등의 요인, 회사마다의 사풍이나 전통, 경영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관념 등 다르기 때문이다.

인쇄산업은 제조업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소위 차별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각의 업체는 최선을 다해 인쇄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 인쇄물의 색상과 효과에서 타업체와 비교해서 보다 고품질로 인정받기 위해 제조방법을 연구하고 기술 개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인쇄시장은 소로트, 다품종이라는 수요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경향은 점점 강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객의 취향을 수용하고 인쇄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정에 알맞은 인쇄설비에다 적절한 후가공기기의 도입활용이 불가피해지게 된다. 업계에서 흔하게 회자되고 있는 '인쇄는 장비싸움'이라든가 또는 '후가공기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경쟁의 결과는 뻔하다'는 말의 진의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일반적으로 인쇄기의 후가공기기라고 하면 라미네이팅기, 금·은박기, 자동급지·배지기, 스프레이장치·가습기, 편편칭기, 잉크공급·조색장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모든 후가공기기는 인쇄업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작업과정에서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보적인 기술수준이라 할지라도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게 한다. 인쇄업 경영환경의 일대 변화임에 틀림없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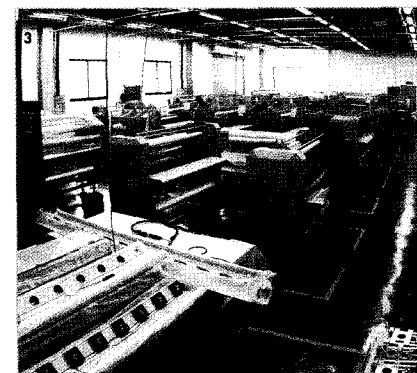
기술 인력의 부족과 후가공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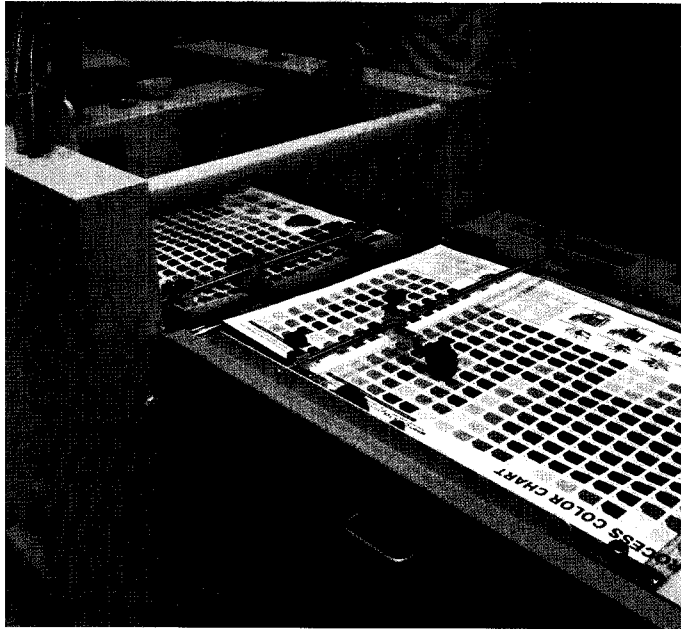
최근 인쇄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무래도 개인화에 따른 소량 다품종과 단납기, 고품질화 추세일 것이다. 이러한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인쇄업체의 숙명이다. 그것도 비용절감을 위한 인쇄공정의 효율화라는 과제를 해결하면서 추구해야 하느니 만큼 개발업체의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디 그 뿐인가. 경기부진, 과당경쟁, 자금난, 기술인력 부족 등등 인쇄업체를 둘러싼 난제들이 줄을 잇는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 속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가까운 장래에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있다. 기술 인력의 부족이다. 기술 인력의 공급을 가로막는 것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률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도 감소한다. 장래 여러 산업분야에서 만성적인 노동력부족상태가 도래될 것이 뻔하다. 현재도 기술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산업은 그 심각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가 절대적이지만 민간단체와 기관의

- 1 EXTRUDER-C393
- 2 Pioneer Production
- 3 LARGE MC FAC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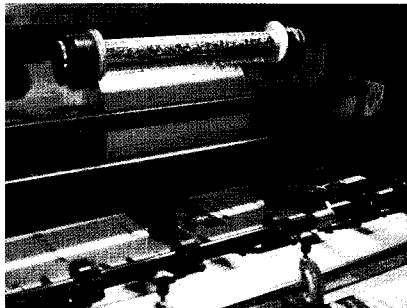




협조가 긴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개별산업이나 단체에서 추진하기는 너무나 큰 문제이다.

매력적인 산업

다가오는 노동력 부족시대를 인쇄산업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것은 인쇄산업이 매력적인 지식산업으로서의 이미지 정착과 자리매김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우리 인쇄산업은 첨단장비의 도입과 후가공기기의 개발로 많은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3D업종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인쇄산업은 더 이상 노동집약적인 업종이 아니다 잉크나 기름을 직접 만지는 노동현장이 아니다. 인쇄업계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인쇄산업이 매력적인 산업이라는 인식이 보다 확산돼서 인기업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인쇄산업의 내일을 위한 주요과제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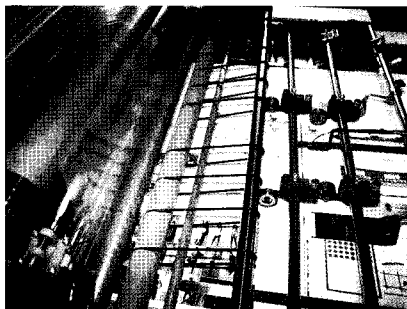


인쇄기 능력 극대화를 견인하는 후가공기기

후가공기기는 노동력을 확보해 주는 차원의 매력 외에 인쇄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고품질인쇄, 비용절감, 납기단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오늘날 인쇄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 컴퓨터화 되어 고품질, 고효율 나아가서는 논스킬화 까지도 내다 보고 설계되어 있다.

인쇄기 메이커는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성능 향상일 것이다. 그러나 인쇄기를 도입하는 전체 개별 인쇄업체의 환경이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인쇄기를 만들어 내기에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인쇄업체의 요구에 따라 후가공기기와 같은 설비를 인쇄기에 탑재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인쇄업체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환경과 기호에 후가공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쩌면 고품질, 원가절감, 납기단축으로 가는 최우선적인 경영수단일지도 모른다.

한편 각 인쇄기 메이커에서도 인쇄기를 도입하는 고객업체에게 인쇄기와 각종 후가공기기 메이커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공급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고객에게 최적의 인쇄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업태변혁

인쇄업계는 이미 인쇄산업을 정보화산업으로 인식하고 '인쇄정보산업'이라는 말로 업계에 정착이 되었다. 최근의 인쇄물은 컴퓨터에 의해 작성되기도 하고, 컬러인쇄도 컬러프린터나 컬러복사기 등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들 아마추어도 기존 인쇄업체에서 제작하는 인쇄물과 큰 차이가 없는 인쇄물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종래의 인쇄기로 만들기 어려웠던 위조지폐를 컬러프린터로 간단히 만들어내는 아마추어들이 많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어디에서 날까. 프로는 아마추어보다 납기를 반으로 줄이고 비용을 반으로, 그리고 미스로 인한 손실을 5분의 1로 줄인다면 아마추어가 받을 불이익을 없앨 것이라 한다. 즉 프로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적지만 효율적인 노력이 축적돼야 한다. 각 공정에서 당장의 적은 비용절감, 지금 당장의 작업능률향상, 지금 당장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 실수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당장의 도전이 필요하다. 다행스럽

계도 각 공정의 기기시스템은 고도로 발달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우수한 후가공기기 요소요소에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설비를 활용하여 납기단축, 저렴한 비용, 작업효율의 상승효과로 프로의 힘을 발휘해야만 한다.

인쇄기에 후가공기기는 비타민제

원래 후가공기기는 별로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다. 그늘에 가려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후가공기기가 장애를 일으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 그 불편함과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람에게 있어 흡사 비타민과 같다고 할까.

후가공기기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그 진가는 더욱 돋보여진다. 엔진, 타이어, 핸들, 액셀, 브레이크만으로 자동차는 만족할 성능을 내지 못한다. 여기에 후가공기기인 오토매틱 기어 미션, 파워스티어링, 과급기, 서스펜션, 여러 가지 안전대책 장치, 에너지 생력화 장치, 환경대책 장치 등이 탑재됨으로써 훌륭한 성능의 인기 있는 자동차가 되는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후가공기기는 인쇄업체의 납기단축과 비용절감, 고품질의 인쇄물의 손실을 저감하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래의 노동력 동태를 고려하여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여성이 일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인쇄공정의 논스킬화도 부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인쇄업체는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해 아마추어의 참여에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 가지 후가공기기를 활용하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초보오퍼레이터도 프로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자사의 장점이 자주특기를 살려간다면 새 시대에 걸맞은 업태변혁도 순조로이 확립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인쇄업에서 후가공기기는 결코 주역은 아니지만 그 다양한 종류와 용도의 편리성, 비용면에서의 효율적인 기여도 등 인쇄현장에서 그 가치는 점점 강화될 것이다. 인쇄기가 진화해서 첨단화하면 할수록 인쇄기의 성능을 최고조로 이끌어내기 위한 후가공기기의 존재가 불가결해진다. 더 한층의 다양하고 우수한 후가공기기의 개발이 기대되는 것이다.



▲ 후가공을 거친 최중인쇄물

